

##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나 은 영\*    차 유 리  
서강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1979년, 1998년의 가치관 조사에 이어 2010년의 조사 결과를 더함으로써 지난 30년 간 한국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결과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 및 경기 시군부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의 남녀 각 100명씩 할당 표집 하여 800명에게 개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문항은 1998년 조사 시와 동일한 가치관 21문항(자신과 가족 중심 개인주의, 탈권위주의, 자기주장성, 불확실성 회피, 미래지향성, 남녀평등의식, 및 풍요로운 생활 차원에서 각 3문항씩)과 탈물질주의 측정의 위한 1문항이었다. 분석 결과, 1979년부터 1998년까지의 19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12년 동안에도 자신과 가족 중심 개인주의와 남녀평등의식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탈권위주의와 자기주장성의 일부 문항에서는 후반 12년 간 윗사람에 대한 배려와 겸손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체로 급격히 변화하는 가치관들은 초반 19년간은 50대보다 20대가 더 빨리 변화하여 세대차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후반 12년간은 대체로 적응하기 위한 50대의 빠른 변화로 인해 세대차가 조금 줄어들었다. 또한, 1998년 조사에서는 IMF 직후 물질주의로 약간 후퇴하던 전반적인 경향도 젊은 층이 더 빨랐으나, 2010년에는 여전히 탈물질주의자의 비율은 젊은 층이 더 높지만 젊은 층의 물질주의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혼합형이 줄어들었고, 기성세대는 물질주의자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혼합형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세대차가 감소하였다. 2010년 조사에서 새로이 등장한 문항은 외국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더 친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한 점으로, 다국적 외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환경을 반영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30년 간 지속적으로 남녀노소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가치 항목들도 소통의 공통기반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가치관, 변화, 세대, 차이, 한국인, 개인주의, 남녀평등, 탈권위주의, 자기주장성, 소통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대다. 가치관은 개인이 신념을 가지고 선택하며 평가하는 바람직한 최종 상태로, 인간본성, 세계, 사회 문화, 개인의 진로 및 직업, 가정생활, 대인관계 등의 각 영역에 대한 개인의 신념, 태도, 및 판단 작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Newcomb et al. 1970).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한 기본적인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사회과학 지정주제 연구 KRF-2009-328-B00085).

† 교신저자 ena@sogang.ac.kr (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념으로, 세부적인 태도를 구성하며 행동의 근간이 된다. 이 가치관은 태도와 행동에 비해 비교적 잘 변하지 않으며,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급격한 사회에서는 가치관의 변화가 눈에 띄는 정도로 충분히 커서 경험적 조사로 측정 가능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5~10년 이상의 긴 간격을 두고 측정할 때 비로소 그 변화를 증명할 수 있다.

가치관은 또한 세대, 지역, 및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광범위한 영역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세대 간, 남녀 간, 또는 국가 간에 서로 다른 면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가치관과 그 변화 과정을 정확히 아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의 공통적인 생각들과 공통적이지 않은 생각의 차이들을 밝혀내어, 이를 토대로 공감적 소통을 통한 사회 통합과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는 데 도움이 된다.

가치관에 대한 관심은 Rokeach(1973)의 가치 연구를 계기로 크게 증폭되었다. 그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가치 항목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시하는지에 근거하여 가치관을 측정하면서, 가치관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는 인생에서 성취하고자 희망하는 최종적인 상태로 추구하고 싶은 가치들이며,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는 이러한 궁극적 가치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들이다. '편안한 삶, 흥미진진한 삶, 자유, 행복, 가족의 안정' 등이 궁극적 가치에 해당하며, '야망 있는, 관대한, 즐거운, 독립적인, 책임감 있는' 등이 도구적 가치에 해당한다.

가치관의 변화는 특히 사회 변화 과정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Fussell(1996)은 한 사회 안에서 일상생활 속의 경험이 현존하는 세계관에 비추어 잘 설명되지 않을 때, 그와 관련된 신념과 가치가 변화를 겪어 새로운 세계관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이론화하였다. 가치관의 변화 과정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회 속의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Noelle-Neumann(1998)은 사회현상 관련 연구들 속에서 '예기치 않은 발견들'을 종합함으로써 독일의 가치관이 우파에서 좌파 쪽으로 변화해 온 과정을 정리하였다. 과거 200년 간 독일 사회의 특징으로 지속되어 왔던 부르주아 가치가 1967년부터 1972년 사이에 희미해졌다는 것, 독일인 스스로에게 자신이 좌파

에 가까운지 우파에 가까운지를 물었을 때에도 좌파 쪽으로 뚜렷하게 기울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좌파 쪽이나 우파 쪽이나 하는 것이 좌우 관련 가치관들(예: 사회적 안녕, 복지, 인간적 유대와 같은 좌성향 가치관과 경제적 경쟁, 국가 보안, 종교성 등과 같은 우 성향 가치관)과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는 사실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또한 1967년에는 81%의 30대가 자녀들에게 공손함과 좋은 매너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1972년에는 50%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1967년에는 71%의 젊은 세대가 자녀들에게 일을 정확하고 양심적으로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던 데 비해 5년 후에는 52%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데 주목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1978년에는 좌우 척도에서 우 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으나, 1989년에는 중도가 가장 많으면서 좌우가 균형을 보이는 모양으로 분포가 변화했다.

일본의 가치관 변화 연구는 더 체계적이다. Makita와 Ida(2001)는 1973년부터 1998년까지 매 5년 간 주기적으로 일곱 개 범주에 대한 가치관 조사를 진행하였다. 흥미로운 결과는 집안일과 육아를 여성에게만 맡기지 말고 남성도 함께 도와야 한다는 인식이 25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5년 NHK의 시간 사용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가사 일에 쓰는 시간은 평균 4시간 35분인 반면 남성은 34분으로 나타나, 한국과 유사한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cf. 나은영, 민경환, 1998). 또 한 가지, 25세에서 55세 사이의 일본인들은 1973년에는 현재와 미래를 중요시하는 정도가 거의 반반이었으나, 1998년에는 미래보다 현재의 즐거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거의 2배 정도 되는 데까지 변화했다.

가치관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드물다.<sup>1)</sup> 특히 가치관의 '변화'에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단지 몇

1) 1970년대 이후 발간된 한국심리학회 분과별 학회지 전체에서 '가치관'으로 검색된 논문은 모두 23편(중복논문 5편 제외)이었다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참조). 그 중 소비, 신체, 외모, 광고 등과 관련된 가치관 연구가 7편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가치관 연구 6편, 성과 결혼에 관련된 가치관 연구 4편, 조직, 일, 및 작업과 관련된 가치관 연구 3편, 상담 및 발달 관련 3편이었다. 간혹 사회학 쪽 연구도 있기는 하나, 장기간의 실증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편만이 있을 뿐이다. 흔히 '가치관이 변했다'거나 '세대 간 가치관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영역에서 쉽게 하고 있는 데 비해, 그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몇 편의 가치관 연구들이 어느 정도 갈등을 줄여 주기는 하지만, 대체로 부분적인 가치관과 특정 연령대만을 다루고 있어 한국인의 인생관 전반을 조망하거나 세대 간 차이를 비교할 만한 전국 규모의 가치관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가치관과 그 변화 과정의 추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포괄적인 실증적 조사 연구는 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만큼 전국 규모의 장기적인 추적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1~2년 사이에 쉽게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장기간에 걸쳐 그 '변화'의 추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기 드문 가치관 변화 연구 중 몇 가지 사례를 들면, 한덕웅과 이경성 (2003)은 Morris와 Jones (1955)가 개발하고 Dukes와 Dempsey (1966)가 수정한 인생관 척도를 바탕으로 13문항의 가치관 척도를 제작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순위를 매겼다. 이 연구가 가치 있는 이유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 약 30년간의 가치관 순위의 변화를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얻은 결과를 요약해 보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1) 1970년대에는 '자기통제'를 가장 선호했으나 2002년에는 그 순위가 낮아졌고, 1970년에 두 번째로 선호되었던 '현실 사회에서 노력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1990년대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 1990년대까지 가장 선호도가 낮았던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감각적이고 흥겨운 생활'과 '단순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의 추구'는 2000년대에 들어 순위가 높아졌다.

Rokeach(1973)의 가치 척도를 활용하여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1982년, 1992년, 및 2002년에 조사한 자료에서는(한덕웅, 이경성, 2003), (1) 궁극적 가치 중에서는 '가정의 안녕'을 가장 일관되게 선호하였으며, '나라의 안전'은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또한 행복, 즐거움, 및 안락한 생활 등은 순위가 상승하였다. 뿐만 아니라, (2) 도구적 가치 중에서는 '책임감'과 '정직'이 가장 일관되게 최상위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유능', '너그러움' 등의 순위가 2000년대 들어 상승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 '공손한 태도'의 선호도가 하

락함과 동시에 '논리성'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상승하였다.

한국의 세대 간 문제점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도 흥미롭다. 정명숙과 김혜리(2005)는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의 일상행동 지각에서 관찰되는 세대 간 차이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세대와 무관하게 가정의 화목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고, 청소년의 행동 중에서 특히 어른을 무시하는 행동이 가장 용납되기 힘든 문제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조부모는 청소년 손자녀의 컴퓨터 관련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가치관과 정치에 관한 연구는 이훈구(1987)의 학생운동 관련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생운동의 절정기를 막 지난 시점의 이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은 사회복지, 집단목표 동조, 집단 동일시, 및 도덕적 압력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집단목표 동조를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보다 '중' 또는 '하'인 집단이 더 강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4학년이 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조금 감소되는 패턴을 보여, 졸업반이라는 입지로 인해 보수적 가치를 일부 수용하는 양상도 관찰되었다.

탈북자 대상의 북한 가치관 연구(정진경, 2002)에서는 특히 남북한 간에 남녀평등의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남녀평등의식은 북한보다 남한이 더 높았고, 특히 남북한 남성들 간의 차이보다 여성들 간의 차이가 더 컸다. 즉, 아직 북한의 여성들은 남한의 남성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남녀평등의식을 보이고 있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는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조직 중심적 경향이 관료 부패에 대한 용인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본 변지은 등(1997)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은 일반인의 경우는 학력이나 소득이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주며 이에 따라 부패용인도가 달라지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는 인구학적 특성이 조직 중심적 성향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에 따라 부패용인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차재호(1985)는 1979년 한 시점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여, 해방 후 한국인의 가치, 태도, 및 신념의 시대적 변천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체로 농촌의 저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더 전통적인 가치

관을 지니고 있고 서울의 고학력자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전통에서 벗어난 미래형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한 시점 연구에서 변화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나은영과 차재호(1999)의 연구는 두 시점 응답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조사 설계로, 1979년부터 1998년까지 약 20년간의 장기간 가치관 변화에 대해 한국인 전체를 대표하는 전국 표본 응답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 연구에서는 특히 가치관을 7개 차원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Hofstede(1991)의 5개 문화차원인 개인주의-집단주의, 권력거리, 자기주장성, 불확실성회피, 및 미래지향성 차원에 남녀평등의식과 풍요로운 생활 차원을 더하여, 전반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특히 어떤 차원에서 더 많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세대차는 어떤 차원에서 더 컸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1)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 증가 (특히 젊은 층과 고학력 및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2) 여성에 대한 평등의식 증가 (사회활동 허용, 정조관념 감소 등), (3) 탈물질주의 가치 증가 경향의 주춤 (IMF 이후 물질주의 쪽으로 약간 되돌아감), 그리고 (4) 자기주장성 및 불확실성 수용경향 증가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한덕웅과 이경성(2003)의 대학생 가치관 변화 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대체로 급격히 변화하는 가치관일수록 세대차가 더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젊은 층의 변화 폭이 고 연령층의 변화 폭보다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나은영, 차재호, 1999). 또한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이전에 탈물질주의로 치닫던 경향이 1998년에는 대체로 주춤해지면서 물질주의 쪽으로 잠시 후퇴한 경향도 보였는데, 이러한 역방향의 일시적인 변화 속도도 젊은 층이 더 빨랐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79년과 1998년의 조사에 이어 2010년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가치관을 조사함으로써, (1) 지난 30년간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정도를 확인하고, (2) 이 30년 중 초반 19년(1979년부터 1998년까지)과 후반 12년(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변화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3) 30년 간 지속되어 온 한국인의 안정된 가치관은

무엇이며, 큰 시대변화를 겪은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구분함으로써, 한국인의 상호 이해에 바탕을 둔 소통의 물꼬를 트는 데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지난 30년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의 방향과 속도는 어떠하며, 연속성이 있는가?

가설 1. 1979년부터 1998년까지의 변화 방향과 마찬가지로, 1998년부터 2010년 사이에도 개인주의, 탈권위주의, 자기주장성, 남녀평등의식, 풍요로운 생활, 및 탈물질주의 성향이 증가했을 것이다.

가설 2. 1979년부터 1998년까지의 변화 속도와 마찬가지로, 1998년부터 2010년 사이에도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의 변화 속도가 더 빨라, 세대차가 증가했을 것이다.

## 방 법

본 연구의 조사는 유사 종단적 연구(quisi-longitudinal study)로서 '경향/추이 연구(trend study)'와 '동류집단/중다 코호트(multiple-cohorts)' 연구의 특성을 모두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활용된 조사 시점은 각각 1979년, 1998년, 2010년으로, 약 20년(19년), 약 10년(12년)의 비정기적 주기를 가진다. 변화의 속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빨라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 늦기 전에 현재의 가치관을 측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또한 추후 연구는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정기적 연구가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2010년을 3차 조사 시점으로 정했다.

## 조사 대상 및 표본 추출 방법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시군부에서 성별, 연령별, 및 지역별 할당표집으로 추출한 800명의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1998년에 사용했던 가치관 문항들과 동일한 문항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에 표본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sup>2)</sup>

2) 1979년 조사는 도시 및 농촌 지역의 20대와 50대 이상 남녀 기혼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1998년과 2010년 조사에서는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인구비례 또는 성별, 연령

표 1. 2010년 조사 대상의 성별, 연령별, 및 지역별 분포 (괄호 안은 1998, 1979년 조사 대상의 분포)

지역	연령				계
	20대	30대	40대	50대 (50대 이상)	
서울	37	38	38	37	150
	(29)	(26)	(18)	(19)	(92)
	(100)	(0)	(0)	(100)	(200)
	-----				
남 6대 광역시	38	37	37	38	150
	(31)	(31)	(21)	(22)	(105)
	(0)	(0)	(0)	(0)	(0)
	-----				
경기도 (8개도 시/군부) (면 이하 부락)	25	25	25	25	100
	(52)	(55)	(35)	(53)	(195)
	(50)	(0)	(0)	(50)	(100)
	-----				
서울	38	37	37	38	150
	(29)	(27)	(19)	(23)	(98)
	(100)	(0)	(0)	(100)	(200)
	-----				
여 6대 광역시	37	38	38	37	150
	(31)	(31)	(19)	(28)	(109)
	(0)	(0)	(0)	(0)	(0)
	-----				
경기도 (8개도 시/군부) (면 이하 부락)	25	25	25	25	100
	(47)	(53)	(33)	(68)	(201)
	(50)	(0)	(0)	(50)	(100)
	-----				
계	200	200	200	200	800
	(219)	(223)	(145)	(213)	(800)
	(300)	(0)	(0)	(300)	(600)

**문항 구성 방법**

**가치관 문항 21개**

차재호(1985)의 1979년 조사문항들 가운데 Hofstede(1980, 1991)의 5개 문화차원, 즉 (1) (자신과 가족 중심) 개인주의, (2) 탈권위주의, (3) 자기주장성, (4) 불확실성 회피, (5) 미래지향성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3개씩 선정하고, 이에 더하여 눈에 띄게 큰 시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판단된 (6) 남녀평등 의식 및 (7) 풍요로운 생활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문항들을 각각 3개씩, 모두 21문항을 선정하였다. 그 중 2개 문항은 1979년 조사 당시

별 할당표집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1998년에는 서울, 6개 광역시 및 8개 도의 시군부에서 표집을 실시했으나, 2010년에는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는 그대로 유지하되 8개도의 시/군부를 경기도에 한정하였다. 그밖에, 1998년 연구에는 조사대상자 중 60세 이상이 46명 포함되었지만, 2010년 연구에서는 연령을 20대~50대로 한정하였다. 1998년 조사 당시 8개도의 시군부(특히 군부)와 60대의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이렇게 해도 비교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에 사용했던 문항에서는 찾기 어려워 1998년에 새로 포함된 문항이었고, 2010년의 조사에서도 이 문항들을 모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1998년의 조사 문항과 동일한 21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신과 가족 중심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집단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집단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Hofstede, 1991; Lewicki, 2008). 본 연구에서는 특히 충효사상 및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1) 충효사상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2) '나라'와 자신과 가족 중 어느 쪽을 떠받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3) 부모 봉양이 효도인지 출세가 효도인지를 묻는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탈권위주의:** 윗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에 기꺼이 따르고자 할수록 탈권위주의 성향이 낮은 것이다. 이것은 Hofstede(1991)의 권력거리(power distance)와 유사한 것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시할수록 권력거리가 크며 권위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을 강조할수록 탈권위주의적이며 권력거리가 작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 사람을 고용할 때 고분고분한 사람을 선호하는지 책임감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지, (5) 상하 구별과 직능 구분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6) 윗사람이 틀렸을 때 모른 척 하는 것이 좋은지 지적하는 것이 좋은지를 묻는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기주장성:** 자기주장성은 남성성-여성성 차원으로 불리기도 하며(Hofstede, 1991), 성취(남성성)와 조화(여성성) 중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남성적 문화에서 사회의 지배적 가치는 ‘강인함, 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성취하기, 상대의 삶의 질이나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반면, 여성적 문화의 특징은 관계, 양육,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대표된다(Hofstede, 1991; Lewicki, 2008). 본 연구에서는 (7)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불만이 있어도 참아야 하는지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지, (8) 겸손해야 하는지 실력을 드러내야 하는지, 그리고 (9) 낙오자가 도태되는 것은 자연적인 귀결인지 아니면 낙오자를 구제해야 하는지를 묻는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불확실성 회피 성향:**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성향”을 말한다(Hofstede, 1991). 즉,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정도란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확실한 상황은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절대적인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반면, 불확실한 상황은 급속한 변화와 새로움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Hofstede, 1991; Lewicki, 2008).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문화에서는 낯선 것을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 있게 바라본다. 본 연구에서는 (10) 여유 있는 마음과 서두르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지, (11) 외국인에게 더 친절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에게 하듯 하거나 덜 친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12)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할 것이 좋은지 경계하는 것이 좋은지를 묻는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미래지향성:** 미래지향성은 Hofstede(1991)의 장기지향성에 해당한다. 미래의 좋은 결과를 위해 현재의 힘든 점을 참아낼 수 있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3) 과거, 현재, 미래 중 미래를 버릴 것인

지 과거를 버릴 것인지, (14) 현재를 즐기는 것과 미래를 대비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15) 전통적인 풍습은 문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남녀평등 의식:** 남녀평등 의식은 Hofstede(1995)의 문화차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눈에 띄게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998년 조사 시부터 포함시켰던 의식 차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16)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지, (17) 결혼한 여자도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자의 자리는 가정 안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18) 여자가 결혼한 후에 시택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시택과 친절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지를 묻는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실제로 1979년부터 사용되던 문항의 표현들을 1998년에 이어 2010년에도 그대로 사용했는데, ‘처녀의 정조’라든지 ‘시집에 충성’한다든지 하는 표현들은 지금은 어색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조사에서는 문항 간의 완전한 맞비교를 위해 어휘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고,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현재의 상황에 좀 더 맞는 표현으로 바꾸어 설명하였다.

**풍요로운 생활:** 이 차원도 역시 Hofstede(1995)의 문화차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부분이라 판단되어 1998년 조사 시부터 계속 포함시켜 왔다. 본 연구에서는 (19)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 (20) 인생을 실수 없이 깨끗이 윽게 사는 것과 실수 좀 하더라도 풍부하게 사는 것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21) 귀하고 찬한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7개 차원에서 3개씩 각각의 문항은 두 개의 대비되는 선택지 가운데 자신의 의견에 가까운 것을 하나 고르도록 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가장 떠받들어야 할 것은 (1) 자기의 나라이다” 또는 “(2)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다”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다. 분석할 때에는 두 번째 선택지를 택한 비율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았다.

#### 탈물질주의 문항 1개

탈물질주의 측정 문항은 정철희(1997)가 Inglehart(1997)

의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국가 목표 12항목 중 6항목을 선택하는 질문이었다. 이성적·합법적 권위의 기반 위에서 경제성장과 성취동기에 역점을 두었던 시대가 물질주의의 시대라면, 선진국들부터 점차 권위를 덜 강조하며 개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주관적 안녕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탈물질주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나은영 · 민경환, 1998; Inglehart, 1997 참조). 장기적인 국가목표 12가지 중 중요하게 꼽은 6가지 안에 탈물질주의 항목(직장과 사회에서 발언권 증대, 환경 개선, 언론자유 보장, 정부 정책결정에 발언권 증대,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그리고 돈보다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 중 몇 개를 포함시켰는지를 탈물질주의 정도의 지표로 점수화하였다.

#### 조사 시기 및 자료수집 방법

설문조사는 2010년 5월 6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하나마케팅서비스의 훈련받은 면접자들이 표본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개별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를 실시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였다.

#### 분석 절차 및 방법

가치관을 묻는 7개 차원(개인주의, 탈권위주의, 자기주장성, 불확실성 회피 성향, 미래지향성, 남녀평등의식, 풍요로운 생활)의 각 문항마다 1979년, 1998년, 및 2010년에 사람들이 선택한 응답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먼저 분석하였다. 분석할 때에는 (대체로 진보적인) 두 번째 선택지를 택한 비율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더하여, 성별,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를  $\chi^2$  검증 하였다(부록의 표 I-8 참조). 세대차는 각 시기 20대와 50대의 응답률 차이를 구한 다음, 이것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판단하였다. 끝으로, 탈물질주의 점수는 정철희(1997)의 방식대로 국가의 장기목표 12개 중 6개를 고를 때 5개 이상을 물질주의에서 택한 사람은 물질주의자, 5개 이상을 탈물질주의에서 택한 사람은 탈물질주의자, 그리고 나머지는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

## 결 과

### 1979년, 1998년, 및 2010년 사이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요약

1979년, 1998년, 및 2010년 사이에 일어난 가치관의 변화 정도와 세대차 증감의 정도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이 표의 왼쪽을 보면, 1998년에 비해 10%이상 크게 확대된 가치관은 개인주의 차원의 세 항목 모두, 남녀평등의식과 탈권위주의 및 미래지향성 각 차원마다 두 항목씩, 그리고 자기 주장성, 불확실성 회피, 및 풍요로운 생활 차원 각 한 항목씩, 모두 12문항이다. 1998년과 2010년 사이의 21개 가치관 변화의 절대 값을 7가지 차원에 따라 합한 결과, 남녀평등의식(57.84%)이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고, 두 번째가 개인주의(51.48%), 세 번째가 미래지향성(41.1%)이었다. 그 다음은 불확실성회피(37.53%), 풍요로운 생활(27.9%), 탈권위주의(25.24%), 및 자기 주장성(11.28%)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가치관의 변화 방향은 1979년과 1998년 사이 19년 간, 그리고 1998년과 2010년 사이 12년 간 일치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반면에, 표 2의 오른쪽에서 알 수 있듯이 1998년에 비해 10%이상 세대차가 커진 가치관은 외국인을 특별히 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 하나뿐이었다. 전체 21문항 중 개인주의 3문항 모두, 남녀평등의식과 탈권위주의의 각 2문항씩, 그리고 자기주장성과 풍요로운 생활 각 1문항씩, 모두 9개 문항에서 세대차가 줄어들었다. 이는 1979년부터 1998년까지 19년 사이에는 세대차가 10% 이상 줄어든 문항은 전혀 없었고 세대차가 10% 이상 커진 문항이 5개(충효사상, 출세가 효도, 직능구분 중요시, 정조 지키지 않아도 됨, 인생은 풍부하게)였던 결과와 구분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방향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개인주의와 남녀평등의식 등이 일관성있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세대차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커지다가 다시 약간 좁혀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신구세대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적응해 가는 과정의 하나로 해석된다.

표 2. 1979년, 1998년, 및 2010년 사이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요약표

문항내용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 변화	세대차 증감			세대차 증감
	1979년	1998년	2010년		1979년	1998년	2010년	
<b>개인주의</b>								
1. 충효사상 중요치 않음	19.65	25.35	38.50	5.70 13.15	11.3	29.0	15	17.7 -14
2. 자신과 가족 떠받들기	41.30	71.75	89.13	17.40 17.38	15.3	19.1	15	3.8 -4.1
3. 출세가 효도	47.00	43.30	64.25	-3.70 20.95	4.0	19.2	-1	15.2 -18.2
<b>탈권위주의</b>								
4. 순종보다 책임감 중요시	66.80	69.70	65.38	2.90 -4.32	9.0	12.6	-1	3.6 -11.6
5. 상하구별보다 적능구분	27.15	30.40	41.25	3.25 10.85	-1.7	18.5	20	16.8 1.5
6.윗사람 틀린 점 지적	74.00	86.95	76.88	12.95 -10.07	5.0	11.7	0.5	6.7 -11.2
<b>자기 주장성</b>								
7.인내보다 시정요구	64.50	66.10	76.13	1.60 10.03	24.0	28.1	8	4.1 -20.1
8. 겸손보다 실력과시	34.50	20.70	20.75	-13.8 0.05	-1.0	7.1	15.5	6.1 8.4
9. 낙오자 구제해야(-)	76.20	62.30	63.50	-13.9 1.2	-3.7	-4.0	-8	0.3 4
<b>불확실성회피</b>								
10. 인생 서둘러야	42.35	31.35	26.50	-11.00 -4.85	-2.0	5.3	5.3	3.3 0
11. 외국인에 덜 친절	18.00	14.05	38.63	-3.95 24.58	6.0	2.6	-16	-3.4 13.4
12. 처음 보는 사람 경계	-	12.90	21.00	- 8.10	-	-7.8	-9.5	- 1.7
<b>미래지향성</b>								
13. 미래보다 과거 버림	89.85	92.35	88.13	2.5 -4.22	0.4	-5.2	-0.5	4.8 -4.7
14. 미래 대비함	-	82.90	62.75	- -20.15	-	-9.9	-18.5	- 8.6
15. 전통풍습 도움 안됨	21.00	22.40	39.13	1.40 16.73	0.0	7.1	3.5	7.1 -3.6
<b>남녀평등 의식</b>								
16. 정조 지키지 않아도	12.00	28.85	61.63	16.85 32.78	14.6	32.6	22.5	18.0 -10.1
17. 결혼한 여자 가정안(-)	60.50	34.35	36.38	-26.15 2.03	1.7	-10.3	-16	8.6 5.7
18. 시집과 친정 동등하게	36.65	66.85	89.88	30.20 23.03	16.7	21.6	2	4.9 -19.6
<b>풍요로운 생활</b>								
19. 돈은 꼭 있어야	68.35	76.50	79.38	8.15 2.88	-9.9	-13.8	-12.0	3.9 -1.8
20. 인생은 풍부하게	35.85	50.05	70.25	14.20 20.20	14.3	37.1	5.5	22.8 -31.6
21. 직업귀천 없다(-)	58.85	68.20	63.38	9.35 -4.82	-0.4	-1.0	5	0.6 4

주.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의 각 4열에서 1행은 1979년부터 1998년까지의 변화, 2행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변화임. 가치관의 변화에서 3열은 각 문항의 두 선택지 중 두 번째 항목(표의 좌측 내용)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 세대차 증감은 20대의 선택 비율에서 50대의 선택비율을 뺀 값. 50대의 선택 비율이 20대보다 높은 경우 음의 수를 갖게 됨. 그러나 세대차의 증감을 계산할 때에는 단순한 세대 간 격차의 증감을 의미하므로 여기서 계산된 부호를 무시하고 1990년대, 2010년대의 세대차 절대치에서 1970년, 1990년대의 세대차 절대치를 각각 뺀 값을 구함. 이렇게 구해진 값(표의 가장 우측 열)이 음수인 경우는 세대차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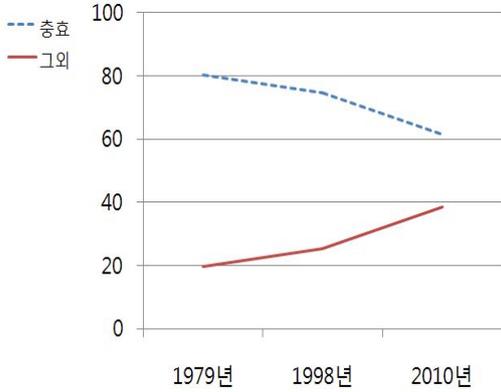


그림 1. '충효사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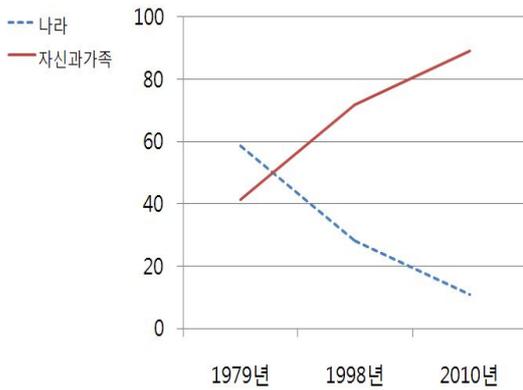


그림 2 '자신과 가족'을 떠받들어야 한다고 보는 비율 증가.

###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가치관 변화의 문항별 추이 분석

#### 가족 중심 개인주의

**'충효사상' 점점 덜 중요시:** 1979년부터 지속적으로 점점 더 충효 사상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그림 1 참조). 20대와 50대의 세대 차는 1979년에 11.3%, 1998년에 29.0%로 증가했던 것과 달리, 2010년에는 15%로 감소했다. 즉, 1979년과 1998년이라는 약 20년 기간 동안의 세대 차는 17.7% 증가했지만, 1998

년과 2010년이라는 약 10년 기간에는 14%가 감소했다. 그러나 연령이 낮을수록 충효사상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은 여전히 존재 한다( $\chi^2=9.503, p<.05$ ).

**'자신과 가족' 중심 개인주의 (1998년에 주류 가치관 진입 후 확대 추세):** 문항 2는 사람이 가장 떠받들어야 할 것으로 나라를 택할 것인지 자신과 가족을 택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도 개인주의 방향의 시대변화가 관찰된다(그림 2 참조). 1998년에 비해 자신과 가족 중심 개인주의 가치관이 17.38% 증가했다.

1979년에는 자신과 가족을 택한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16% 더 높기는 했지만 남녀 모두 '나라'를 택한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1998년에 들어서는 자신과 가족을 택한 비율이 과반수가 됨으로써 주류 가치관으로 진입했고, 남녀가 거의 같은 수준(남성 71.7%, 여성 71.8%)이 됨으로써 남녀 간 차이가 사라졌다. 2010년에는 자신과 가족을 나라보다 더 중요시하는 응답률이 남성보다 여성이 4.7% 더 높았다( $\chi^2=4.656, p < .05$ ).

**'출세가 효도' (주류 가치관 진입):** 1979년과 1998년도만 해도 효도를 위해 출세보다 부모 봉양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비해 2010년에는 부모 봉양보다 출세가 효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급기야 64.25%가 되면서 이러한 의식이 전복되었다(1979년 47.00%, 1998년 43.30%). 이러한 생각은 1998년에 특히 20대에서 크게 증가하면서 세대차가 19.2%로 커졌다. 2010년에는 50대 역시 출세를 효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동일한 수준(50대 62.5%, 20대 61.5%)이 되면서 세대 차이가 1998년의 경우보다 18.2% 감소하였다.

1979년에는 남녀 모두 출세보다 부모 봉양을 더 효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남녀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1998년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부모 봉양을 효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2010년에 와서는 출세가 효도라고 생각하는 비율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7% 높기는 하지만( $\chi^2=4.267, p < .05$ ), 남녀 모두 과반수(남 60.8%, 여 67.8%)가 출세를 효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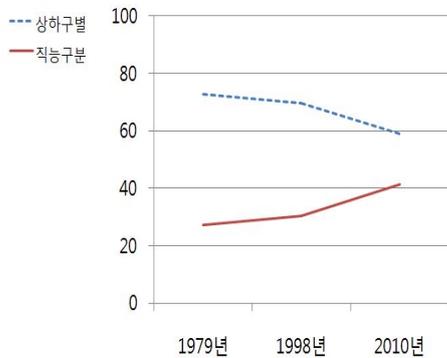


그림 3 사회질서 유지 위해 '직능구분이 중요하다'고 보는 비율 증가

### 탈권위주의

**고용시 책임감 중시 (안정적 가치관):** 1998년에는 교육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고분고분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나은영, 차재호, 1999), 2010년에는 그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9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고분고분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았고(13% 차이), 1998년에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정도로 (여자가 오히려 2.2% 더) 일의 수행(책임감)을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2010년에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4.2%로 그 차이가 더 증가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패턴이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상하구별을 더 중요시하면서도 직능구분 점점 더 중요시:**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상하구별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는 상하구별보다 직능구분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그림 3 참조). 1979년과 1998년 사이에는 3.25%, 1998년과 2010년 사이에는 10.85%의 가치관 변화가 나타나, 직능구분의 중요성은 최근 12년 간 더 급격히 커졌다고 할 수 있다(표 2 참조). 이러한 경향은 30대 이상이 20대에 비해 두드러진다( $\chi^2 = 18.713, p < .001$ ). 1979년(26.3%)부터 1998년(36.5%)까지는 20대에서 직능구분을 중시하는 비율이 늘어났고, 2010년에 직능구분을 중시한다고 응답한 20대 비율이 52.0%로 증가해 마침내 과반수가 되었다.

### 윗사람 틀릴 때 지적, 여전히 과반수지만 다소 역행

**추세:** 1998년의 경우(남 90.6%, 여 83.3%)와 달리, 2010년에는 남녀 모두 감소 경향(남 75.3%, 여 78.5%)이 나타났다. 여전히 남녀 모두 윗사람 틀릴 때 지적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만, 응답률 변화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10.07% 역행한 것이다(표 2 참조). 이는 권위주의에 부응하는 경향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 배려, '예의바른 무관심'<sup>3)</sup>이나 개인주의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 자기 주장성

**함께 행복하려면 불만에 시정 요구해야 (안정적 가치관):** 함께 행복하려면 불만이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197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과반수를 나타냈다. 2010년에는 그러한 응답률이 76.1%가 되면서 1998년에 비해 10%가 증가하였다(그림 4 참조).

함께 행복하려면 불만을 참기보다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79년에는 큰 남녀차를 보였다(남자 81.0%, 여자 48.0%). 그러나 1998년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비율이 남자는 65.8%로 줄어든 반면, 여자는 66.4%로 늘어, 여자는 참고 남자는 요구하던 과거의 남녀차가 없어지면서 중간 정도의 합의점이 찾아졌다(나은영, 차재호, 1998). 2010년대에 와서는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결과( $\chi^2 = 5.014, p < .05$ )가 나타남으로써(남자 72.8%, 여자 79.5%), 자기주장성 경향에 남녀 간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9년과 1998년간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50대가 10.7%, 20대는 14.8% 증가함으로써 젊은 층의 변화 폭이 컸었다. 그러나 1998년과 2010년간에는 50대가 18.8%가 증가하고 20대가 오히려 1.3% 감소했다. 1970년대부터 1998년대까지는 계속 세대차가 큰 대표적인 문항이었지만, 2010년으로 오면서 결과적으로 세대차가 20.1% 줄어들었다(표 2 참조). 이는 21세기 들어 빠르게 변화하는 가치관에 50대도 빨리 적응하고자

3) 예의바른 무관심(civil indifference)은 자신도 간섭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존재론적 안전의 욕구에서 비롯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설명하기 위해 고프만이 제시한 용어이다.



그림 4. 함께 행복하려면 불만을 참기보다 '시정요구'해야 한다고 보는 비율 증가.

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즉, 1979년부터 1998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젊은 층의 가치관은 2010년에 속도 조절을 하며 대체로 현상유지를 하는 편인 반면, 20세기 말의 20년 간 미처 따라잡지 못했던 50대의 가치관이 21세기 초반 10년 간 급히 변해 오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차' 측면에서만 보면 1998년이 지금보다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노소 누구나 '대세'에 편승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는 듯하다.

**실력과시보다 겸손해야 (안정적 가치관):** 1998년과 2010년의 응답 결과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서의 시정 요구 관련 자기주장성과는 대조적이다. 실력과시보다 겸손이 일종의 '도덕적 정당'에 가까운 응답이기 때문에, 보다 도덕성이 높은 방향으로의 변화욕구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나은영, 차재호, 1998).

1998년에는 50대(80.2%)가 20대(73.1%)보다 겸손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7.1%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0년에도 마찬가지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20대 71%, 30대 79%, 40대 80.5%, 50대 86.5%) 실력을 드러내기보다 겸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chi^2 = 14.868, p < .01$ ). 겸손 중시 가치관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는 응답자가 학생(전체 표본 118명)인지 아니면 직업을 가졌거나 무직(전체 표본 682명)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학생집단(66.1%)에 비해 비학생 집단(81.5%)이 겸손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chi^2 = 14.552, p <$

.001). 이러한 결과는 연령효과 뿐만 아니라, 학교 내 분위기와 직장 내 분위기에서 당연히 하는 분위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낙오자 구제 찬성 과반수지만, 도태가 자연적 귀결이란 생각 증가 추세:** 1970년대에 비해서는 생존경쟁을 더 당연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낙오자 도태는 슬픈 일이며 낙오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에는 저학력일수록 낙오자 도태는 슬픈 일이며 낙오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을 볼 수 있다( $\chi^2 = 6.076, p < .05$ ). 또한 1979년에는 낙오자 도태를 자연적 귀결로 보던 비율이 남녀 모두 24% 안팎으로 비슷했지만, 1990년대(남 40.1%, 여 35%)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경쟁을 수용하는 가치관을 보여주었고, 2010년대(남 37.3%, 여 35.8%)에는 그 격차가 1.5%로 좁혀졌다.

#### 불확실성 회피 성향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지혜, 과반수 유지하며 증가 추세:** 서두르기보다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9년과 1998년간에는 고학력층의 변화는 거의 없고(0.5%), 저학력층의 급격한 변화(18.4%)로 인해 여유를 중요시하는 생각이 학력에 관계없이 비슷해졌다. IMF 시대 이후 2010년에는 저학력, 고학력 모두 70% 이상이 여유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빠른 발전과 변화 속에 여유 있는 마음을 갈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우대 심리 급격히 감소:** 시대변화와 세대차 증가 모두가 크다(표 2 참조). 외국인을 대할 때 한국인과 똑같이 대하거나 덜 친절해야 한다고 응답한 결과가 1998년에 비해 24.58%나 증가하였다. 이는 점차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그 수도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더 친절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생각이 확산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는 외국인을 대할 때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

20대와 50대 간의 세대 차가 16%나 된다( $\chi^2 = 11.152$ ,  $p < .05$ ). 저 연령층은 외국인에 우호적이고 고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20대 68.5%, 50대 52.5%). 이는 1979년에 6%였던 세대차가 1998년에는 2.6%로 줄어들었던 점과 비교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2010년에 외국인을 우대해야한다고 응답한 20대는 1998년에 비해 15.1%만 감소했지만 50대의 경우에는 그 2배가 넘는 33.7%가 감소했다. 2010년 본 조사의 전체 문항 중에서 1998년에 비해 10% 이상의 세대차가 나타난 결과로는 유일하다.

또한, 예전에는 여성, 남성 모두가 외국인에게 더 친절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졌었지만(1979년 남성 80.3%, 여성 83.7%, 1998년에는 각각 84.9%, 87%), 2010년에는 외국인을 대할 때 더 친절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이 66.3%로 남성의 56.5%보다 10% 가까이 더 높았다( $\chi^2 = 8.020$ ,  $p < .01$ ).

그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에게 더 친절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chi^2 = 13.444$ ,  $p < .01$ ).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sup>4)</sup>의 출현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학계에서나 정책적으로 간주하는 만큼, 고학력자가 외국인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 사회에 노동인력으로 유입된 외국인들이 대개 저학력자이고 그들로 대체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어 불만을 갖게 되는 집단이 한국의 저학력,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sup>5)</sup>, 타당한 결과이다.

또한, 학생 집단(76.3%)이 비 학생 집단(58.8%)에보다 외국인에게 더 친절한 경향이 있다( $\chi^2 = 12.956$ ,  $p < .01$ ).

4) 다문화 가족은 광의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국제결혼 가정(한국인과 외국인 간 결혼 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정(외국인만으로 구성),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화교, 새터민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다(이삼식 등, 2009).

5)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다. 집단 간 관계에서 새로운 이민자 인종에 의한 문화접촉이 위협으로 인식될 때, 그리고 다수집단이 직업, 지위, 권력 등에서 자원 스트레스(resource stress)를 받는 상황에서 그들과 구별되는 이민자 소수집단이 존재할 경우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부정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Leong, 2008; Esses et al., 2001; 윤상우, 김상돈 2010 재인용).

.001). 일반적으로 비 학생 집단은 학생 집단보다는 외국인을 접함으로써 자신이 불이익이나 손해를 볼 여지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불확실한 대상인 외국인에게 보다 관대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처음 보는 사람 우대하면서도 경계심리 증가 추세:** 1998년도나 2010년도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비율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문항 11의 결과와 유사하게 하락세이다. 이 역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의 상대적 증가를 뜻한다. 1998년에 볼 수 있었던 유의미한 남녀차도 없어졌다. 당시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처음 보는 사람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었지만(남성 9.9%, 여성 15.9%), 2010년에는 남성이 21.8%, 여성이 20.3%로 거의 동일해졌다.

문항 11과 유사하게 문항 12에서도 응답자가 학생(전체 표본 118명)인지 아니면 직업을 가졌거나 무직(전체 표본 682명)인지에 따라 찬택률 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생 집단(90.7%)이 비 학생 집단(77.7%)보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더 친절한 경향이 있다( $\chi^2 = 11.378$ ,  $p < .01$ ).

### 미래지향성

**과거, 현재보다 미래 중시(안정적 가치관):** 미래보다 과거를 버리는 데에 과반수인 88.13%의 응답률이 나왔지만, 가치관의 변화 차이는 -4.22%로 약간 감소했고, 1998년에 비해 세대차가 4.7% 줄어들었다. 지난 30년간 시대변화와 세대차 증감 폭이 모두 크지 않은 문항이다(표 2 참조).

1979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었으나, 1998년에는 남녀차가 없어졌다. 또한 1998년에는 20대가 50대보다 약간 더 미래지향적인 쪽의 응답을 많이 택했지만, 2010년에는 20대와 50대간의 세대차가 0.5%로 거의 없어졌다.

**미래 대비 과반수지만, 현재 즐김 증가 추세:**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과반수가 현재보다는 미래를 우선시했다. 그러나 그런 경향은 지난 12년 간 점차 감소하고 있다(그림 5 참조). 또한, 1998년(남성 85.2%,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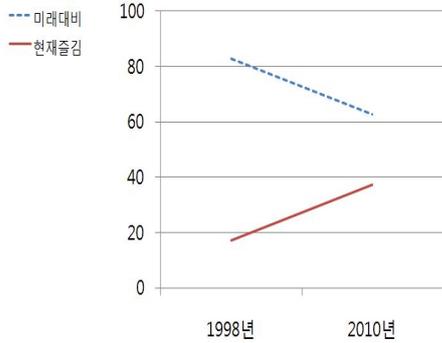


그림 5.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비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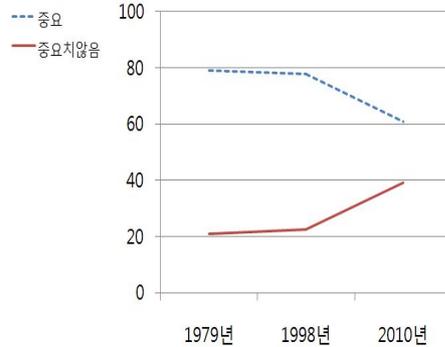


그림 6. 전통적 풍습이 문명위기 극복에 중요치 않다고 보는 비율 증가.

80.6%)과 달리, 2010년대에는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응답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남성 64%, 여성 61.5%). 1998년에도 30대 이상보다 20대가 현재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010년에도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일수록(20대 49.5%, 30대 36.5%, 40대 32%, 50대 31%) 미래보다 현재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hi^2 = 18.589, p < .001$ ). 또한, 학생(전체 표본 118명)인지 아니면 직업을 가졌거나 무직(전체 표본 682명)인지에 따라 그러한 찬택률 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생 집단인 과반수인 55.99%가 현재를 즐기고 싶어 했고, 비 학생 집단에서는 34.0%가 그러했다( $\chi^2 = 20.668, p < .001$ ).

**전통적 풍습 중요시하면서도 도움 안 된다는 생각 증가 추세:** 전통적인 풍습이 문명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하다는 응답이 여전히 과반수이지만 도움 안 된다는 응답이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16.73%나 급증했다(그림 6 참조). 1998년에는 고 연령일수록 전통적인 풍습을 중시하는 경향이 약간 나타났지만, 이때 세대차가 7.1%였던 것이 2010년대에는 3.5%로 줄었다. 서울(전체 표본 300명), 6대 광역시(전체 표본 300명), 경기도(전체 표본 200명)에서의 응답자들은 이 가치관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전통이 오늘날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라고 답한 비율은 전국 6대 광역시가 70.7%였고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55.0%였다( $\chi^2 = 19.322, p < .001$ ). 서울권이 전통적 풍습을 비교적 중시하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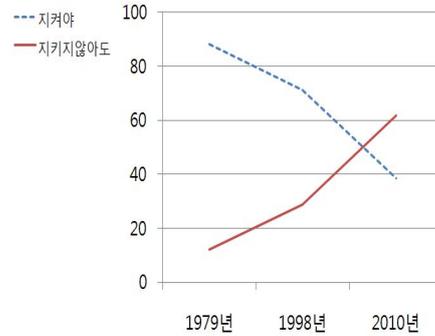


그림 7.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비율 증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 남녀평등의식

**혼전순결 불필요하다는 생각 주류 가치관 진입 (가장 큰 시대 변화):** 2010년도 조사 결과에서 시대변화가 무려 32.78%로 가장 크다(표 2 참조). 정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1998년 이후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이다. 1979년에는 정조를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2%에 그쳤으나, 1998년에는 28.85%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과반수인 61.63%가 되어 마침내 주류 가치관으로 진입하였다(그림 7 참조) 세대차가 줄었다고 하지만 젊은이들이 덜 보수적이라는

특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1998년 결과(20대 45.2%, 30대 34.5%, 40대 18.6%, 50대 12.6%)와 유사하게, 2010년(20대 66.5%, 30대 76%, 40대 60%, 50대 44%)에도 20~30대가 40~50대 보다 정조에 얽매이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chi^2 = 45.981, p < .001$ ).

반면에, 2010년대의 결과가 1990년대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연령과 정조관념의 관계가 대략 역전된 U모양의 곡선을 보인다는 점이다. 1979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50대는 4.7%에서 12.6%로 7.9% 정도 높아졌으나, 20대는 19.3%에서 45.2%로 25.9%나 높아짐으로써, 젊은 층의 변화 폭이 훨씬 컸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10년간에는 50대가 31.4%, 20대가 21.3%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고연령층의 변화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또한, 1998년이나 지금이나 학력이 높을수록 정조에 얽매이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1979년에서 1998년까지 19년 간 혼전순결에 관한 저학력 층의 생각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급격히 개방적으로 변화하여, 1998년 학력차가 28.3%로 매우 커졌다. 2010년에는 저학력 층의 응답에 21.8%의 변화가 있어 예전에 비해 많이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다. 동시에 고학력층의 그러한 가치관은 여전히 급격히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저학력 층과 고학력 층 간에 31.3%의 응답률 차이가 나게 되었다( $\chi^2 = 20.245, p < .001$ ). 이에 따라 최근 10년 사이에 학력 격차는 그 이전 20년간의 경우보다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혼한 여자도 활동해야한다는 생각 확대추세에서 정제:** 1979년에는 반수 이상이 결혼한 여자의 자리는 역시 가정 안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반수 이상이 결혼한 여자도 활동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010년에는 2.03%가 늘어 1998년과 거의 변화가 없었다(부록의 표 I-6 참조). 1998년에는 1979년에 비해 여자도 활동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남녀노소 높아졌는데, 특히 여자, 젊은 층, 및 고학력자일수록 증가하였다. 2010년대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chi^2 = 3.937, p < .05$ ),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chi^2 = 13.881, p < .01$ )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결혼한 여자도 활동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1998년에는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2010년에는 젊은 층이 나이든 층보다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 $\chi^2 = 15.701, p < .01$ ).

한편, 여성의 사회 활동성 인정과 관련하여 나은영, 차재호(1998)의 연구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은 거주 지역, 직업 유형에 관한 결과이다. 2010년 서울(전체 표본 300명), 6개광역시(전체 표본 300명), 경기도(전체 표본 200명)에서의 응답자들 별로 결혼한 여자도 활동해야한다는 가치관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의 경우가 70.0%로 가장 높았고, 6대 광역시가 67.3%로 중간, 경기도의 경우가 48.5%로 가장 낮은 찬택률을 보였다( $\chi^2 = 26.820, p < .001$ ). 학생 집단은 비학생 집단보다 그러한 찬택률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chi^2 = 7.173, p < .01$ ).

**시택과 친정 동등한 대우 (1998년부터 주류 가치관 진입 후 확대 추세):**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친정(처가)을 시택(본가)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79년과 1998년 사이에는 그러한 가치관에 대한 찬택률이 30.20% 증가함으로써 1979년과 달리 남녀 모두의 과반수를 확보했다는 큰 변화가 있었고, 1998년과 2010년 사이에도 23.03%의 증가분이 나타났다(표 2 참조).

그러나, 친정을 시택과 똑같이 중시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은 것은 1979년, 1998년, 및 2010년에 걸쳐 마찬가지다. 2010년에는 남성의 85.3%, 여성의 94.5%가 시택과 친정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이런 생각이 대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9.2%의 남녀차가 존재 한다( $\chi^2 = 18.805, p < .001$ ). 1979년에는 남녀 차가 9.3%, 1998년에는 12.3%였다. 1979년에서 1998년으로 오면서 여성은 그러한 가치관이 32.7%, 남성은 28.7% 증가했고, 1998년에서 2010년으로 오면서도 여성은 21.5%, 남성은 24.6% 증가하여, 남녀 모두 큰 시대변화를 겪었다. 이 문항에서는 전반부 19년간은 여성의 변화가 빨랐고, 후반부 12년간은 남성의 변화가 조금 더 빨라, 여성이 먼저 변화하고 남성이 대세에 적응해 가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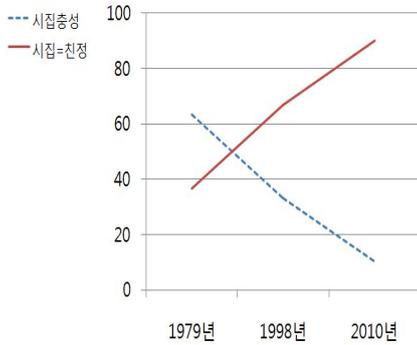


그림 8. '시집'과 '친정'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보는 비율 증가.

### 풍요로운 생활

**돈은 꼭 있어야 (안정적 가치관):** 돈은 꼭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도 1979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과반 수를 차지해왔다. 1979년, 1998년과 마찬가지로 2010년에도 50대가 20대보다 돈의 필요성을 더 크게 평가했다 ( $\chi^2 = 21.646, p < .001$ ). 또한 1998년에 연령과 돈의 필요성에 대한 지각간의 관계가 역전된 U모양의 곡선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0년대에도 유사한 형태의 결과가 나타났다(20대 68.5%, 30대 82%, 40대 86.5%, 50대 80.5%). 나은영, 차재호(1998)는 중년층이 돈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지각함을 의미한다는 것이 인생의 주기와 관련된 현실적인 돈의 필요성과 직결되는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돈이 꼭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에서의 성별 차이는 1979년(남성 67%, 여성 69.7%)과 1998년(남성 76%, 여성 77%)에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남성이 75.5%, 여성이 83.3%로서, 돈의 필요성을 여성이 남성보다 7.8% 더 높게 생각했다( $\chi^2 = 7.338, p < .01$ ). 이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활동 확대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1998년에는 교육 수준 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2010년에는 고학력층이 저학력

층보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chi^2 = 11.283, p < .01$ ). 이는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유로운 태도에 기인한 경향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 집단은 61.9%가 돈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데에 비해, 비 학생 집단은 그보다 10.5%가 높은 82.4%의 찬택률을 보였다( $\chi^2 = 25.925, p < .001$ ). 학생 집단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상주의적 가치관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연관된 결과로 보인다.

**'인생은 풍부하게' 가치관 확대 추세:** 인생을 잘사는 것은 깨끗이 윽게 사는 것보다 풍부하게 사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979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그림 9 참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 정도는 1979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14.20%, 1998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20.20%로 매우 크다. 1998년에 처음 과반수(50.05%)가 간신히 되었지만, 2010년에는 남녀노소, 교육 수준 등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집단의 과반수가 인생을 풍부하게 사는 것을 중시했다. 인생을 풍부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경향이 저학력층보다 고학력층에게 두드러진다는 결과는 1998년뿐만 아니라 2010년에도 나타났다( $\chi^2 = 8.341, p < .05$ ).

**직업 귀천 없다 (안정적 가치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가치관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과반 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치관의 변화와 세대차도 모두 10% 미만의 변동 폭을 가져왔다.

물론, 1998년에는 크게 유의하지 않았지만, 규모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대도시 34.7%, 중소도시 28.9%, 읍면 이하 26.9%). 2010년에는 거주 지역을 서울권(전체표본 300명)과 비 서울권(전체 표본 500명)으로 구분해보았는데, 역시 서울권 거주자(43.3%)가 비 서울권 거주자(32.6%)보다 직업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chi^2 = 9.306, p <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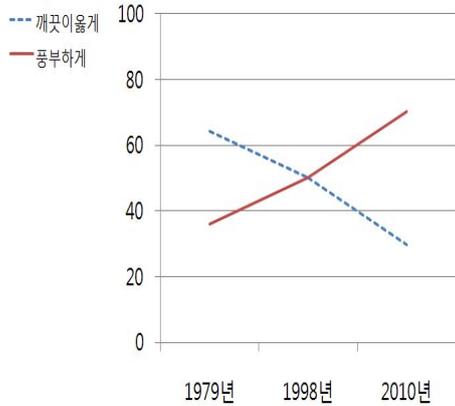


그림 9. 인생을 풍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비율 증가.

탈물질주의 가치의 변화

나은영과 차재호(1998)의 당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7년 IMF 직전에 탈물질주의로 치닫던 경향이 대체로 주춤해지면서 물질주의 쪽으로 잠시 후퇴한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역방향의 변화속도도 젊은 층이 더 빨랐다(표

3 참조). 이에 비해 2010년의 조사 결과에서는 IMF 위기가 지나자 당시 급등했던 물질주의자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46.05%), 혼합형이 많아졌으며(43.75%), 탈물질주의자도 조금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2.35%).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0대와 30대 젊은 세대는 1995년에 비해 2010년에 물질주의자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40대와 50대 기성세대는 동일한 기간 중 물질주의자의 비율이 감소하여, 15년 간 세대차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혼합형의 비율은 반대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줄어들고 40대와 50대의 비율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세대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1979년의 탈물질주의 조사 결과는 없지만, 1997년 IMF 전후 비교를 위해 정철희(1997)의 1995년 자료를 1998년 및 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1998년의 탈물질주의 지표는 IMF로 인한 일시적인 물질주의의 증가, 특히 젊은 층의 더 빠른 변화로 요약될 수 있었다. 반면에 2010년에는 물질주의자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거의 1995년의 수준에 가까워지면서(그러나 1995년보다는 물질주의자의 평균 비율이 더 적음), 물질주의가 줄어들고 탈물질주의에 가까운 혼합형이 증가하는 추세는 기성세대가 더 빨랐다. 이는 전체적인 가치관의 변화 속도와의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3. 1995년, 1998년, 2010년 조사에서 물질주의자, 혼합형, 및 탈물질주의자의 연령별 비율(%)

연령별	물질주의자				혼합형				탈물질주의자			
	1995	1998	2010	증감	1995	1998	2010	증감	1995	1998	2010	증감
20-29세	7.3	51.0	10.5	43.7 -40.5	83.0	39.7	76.0	-43.3 36.3	9.6	9.1	13.5	-0.5 4.4
30-39세	15.7	60.5	18.5	44.8 -42.0	77.4	36.8	75.5	-40.6 38.7	6.9	2.7	6.0	-4.2 3.3
40-49세	23.0	64.8	14.5	41.8 -50.3	72.8	32.4	82.0	-40.4 49.6	4.2	2.8	3.5	-1.4 0.7
50-59세	32.6	71.9	20.5	39.3 -51.4	65.2	25.1	75.5	-40.1 50.4	2.2	3.0	4.0	0.8 1.0
증가분				42.4				-41.1				-1.3
평균				-46.05				43.75				2.35
20~50대 세대차	-25.3	-20.9	-10.0	-4.4 -10.9	17.8	14.6	0.5	-3.2 -14.1	7.4	6.1	9.5	-1.3 +3.4

주. 증감 열의 위 아래 순으로 1995~1998, 1998~2010년 간 변화. 1995년 결과는 정철희(1997)의 자료, 1998년 결과는 나은영과 차재호(1999)의 자료임. 각 유형별 비율의 연도에 따른 증가분과 20대~50대 간 세대차를 계산함.

## 결론 및 논의

199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지난 12년 간 가장 눈에 띄는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양상은 (1) 자신과 가족 중심 개인주의 증가, (2) 남녀평등 의식 확대, (3) 현재중시(미래 대비보다 현재 즐김, 전통풍습 도움 안됨) 경향 증가, (4) 탈권위주의와 자기주장성 증가 경향의 둔화, (5) 외국인 우대 감소, 그리고 (7) 실수하더라도 풍부한 인생 추구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0년 간 가치관 변화가 가장 큰 차원들은 개인주의, 남녀평등의식, 풍요로운 생활, 현재를 즐기는 삶 등이며, 자기주장성과 탈권위주의는 20세기 말 20년 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1세기 초 10년 간 '겸손'과 '윗사람에 대한 배려'와 충돌하며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둘째, 1979년과 1998년 사이에 줄어들었던 가치관의 남녀 차는 2010년에도 지속되었으며, 일부 문항에서는 남녀 역전이 일어나기도 했다(예: 참기보다 시정을 요구하는 것).

셋째, 가치관 변화가 큰 차원들일수록 1979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20대가 50대보다 더 빨리 변화 수용하여 세대차가 증가했으나, 1998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50대가 그 변화의 차이를 부지런히 따라잡아 세대차가 감소하였다. 변화의 방향은 일치하지만, 모든 세대가 모든 시기에 모든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변화하지는 않는다.

넷째, 30년 간 줄곧 모든 세대로부터 50% 이상의 선택을 받은 한국인의 안정된 가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충효사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남녀노소 모두 과반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사람을 고용할 때 순종보다는 책임감을 더 중요시한다, (3)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직능구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과반수의 한국인은 상하구별을 더 중요시한다(2010년 들어 20대만이 48% 지지로 50%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 (4) 윗사람이 틀릴 때 모른 척하기보다는 지적해야 한다, (5) 함께 행복하려면 무작정 참기보다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1979년에 50대만 42.6% 찬성으로 50%에 조금 못 미쳤음), (6) 실력을

과시하기보다는 겸손해야 한다, (7) 낙오자가 도태되는 것은 슬픈 일이다, (8) 인생은 서두르기보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9) 외국인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 (10) 과거와 미래 중 하나를 버린다면 과거를 버리는 것이 낫다, (11) 현재를 즐기는 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녀노소 모두 과반수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2) 전통적인 풍습이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녀노소 모두 과반수가 문명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3) 돈은 꼭 있어야 한다, (14)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다섯째, 예전에는 과반수의 선택을 못 얻었지만, 현재는 남녀노소 모두 과반수가 선택하여 주류 가치관이 된 한국인의 가치 항목은 주로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 및 남녀평등의식 항목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을 떠받들어야 한다, (2) 부모봉양보다 출세가 효도다, (3) 혼전순결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4) 결혼한 여자도 활동해야 한다, (5) 시택과 친정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6) 인생을 실수 없이 깨끗하고 윽게 사는 것보다 풍부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섯째, 2010년 현재 세대차가 가장 큰 항목의 젊은 세대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정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세대차 22.5%), (2) 상하구별보다 직능구분이 중요하다(세대차 20%), (3)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현재를 즐겨야 한다(세대차 18.5%), (4) 결혼한 여자도 활동해야 한다(세대차 16%), (5) 외국인에게 더 친절해야 한다(세대차 16%), (6) 겸손보다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더 좋다(세대차 15.5%), (7) 충효사상은 중요하지 않다(세대차 15%), (8) 사람이 가장 떠받들어야 할 것은 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다(세대차 15%), (9)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세대차 12%).

일곱째, 세대차가 1979년부터 계속 크거나 1998년에 커졌다가, 최근 12년 사이에 50대가 20대의 속도보다 더 빨리 적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대차가 크게 줄어든 항목의 젊은 세대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부모 봉양보다 출세가 효도다, (2) 순종보다 책임감이 중요하다 (3) 시택과 친정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4)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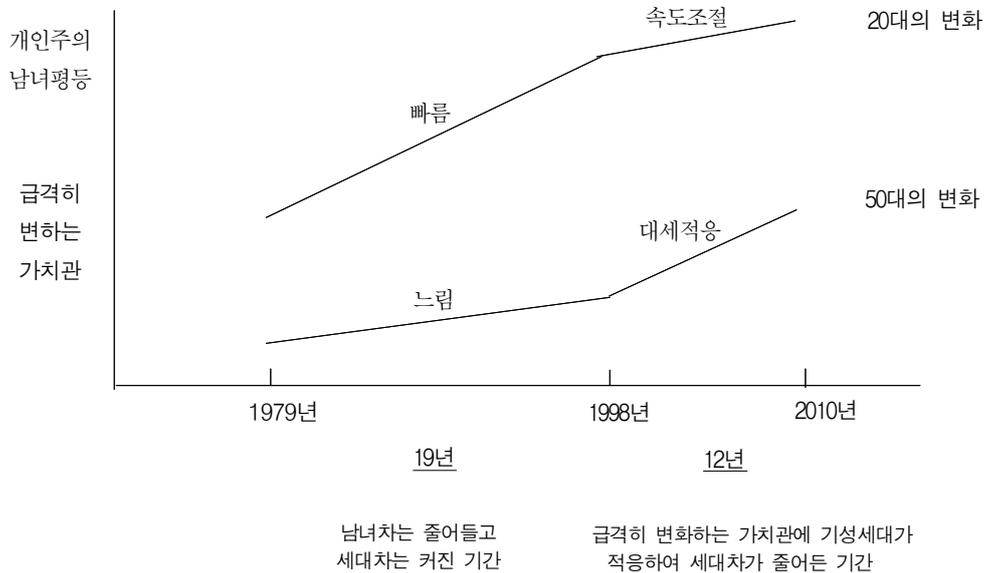


그림 10. 1979년, 1998년, 및 2010년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패턴.

에서 실수 없이 깨끗하게 사는 삶 보다는 풍부하게 사는 삶이 더 좋다.

끝으로, 1998년 이후 새로 등장한 문제로는 외국인에 대한 친절과 우대 문제, 그리고 자기주장성과 권위주의의 공존 문제로서, 국가 간의 경계가 유연해지면서 이민족의 왕래가 많아지고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하며 전통 문화의 장점과 모순이 되는 부분이 생겨, 일부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점은 (1) 1979년부터 1998년까지의 제1기 19년 간, 그리고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2기 12년 간 공통적으로 남녀평등의식,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 풍요로운 생활, 직능구분과 시정요구 경향 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2) 20세기 말 20년간의 가치관 변화의 특성은 '남녀 차 감소'와 '세대 차 증가'였던 반면, 21세기 초 12년 동안에는 급격히 변화하는 가치관에 50대가 이전보다 더 빨리 적응해 가는 양상을 보여, 세대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두 개의 가설 중 가치관 변화의 방향에 대한

가설 1은 지지가 되었고, 변화 속도에 대한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의 변화 방향에는 연속성이 있으나, 변화의 속도는 필요에 따라 초기에 빨리 변화하는 젊은 층을 따라잡기 위해 일정 기간 기성세대가 조금 더 빨리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문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그렇다.

가치관의 변화 속도는 세대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각 세대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른 속도를 보인다. 물론, 문항에 따라서도 다른 변화 패턴을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치관, 특히 급격히 변하는 가치관의 변화 패턴을 개괄적으로 요약해 보면, 그림 1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998년 이후 세대차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대차가 크게 남아 있는 문항들이 있다. 예를 들면, 1979년에는 20대의 19.3%와 50대의 4.7%가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하여 14.6%의 세대차를 보였으나, 2010년에는 20대의 66.5%와 50대의 44.0%가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하여 22.5%의 세대차를 보이고 있다(부록

의 표 I-6 참조). 두 세대 모두 아주 큰 가치관의 변화를 겪어 온 결과, 30년이 지난 2010년의 50대(혼전순결 불필요 44.0%)가 오히려 30년 전의 20대(혼전순결 불필요 19.3%)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2년 간 세대차가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원래부터 세대차가 컸던 문항, 그리고 1998년에 세대차가 워낙 커져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대차가 큰 문항, 2010년에 새로이 세대차가 커진 문항 등을 살펴보면,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와 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가치관일수록 세대차가 크게 벌어진다. 젊은 층은 변화를 비교적 빨리 받아들이는 반면 고 연령층은 뒤늦게 수용하기 때문에 세대차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나은영, 차재호, 1999). 그러나 2010년 조사에서 기성세대의 발 빠른 적응으로 세대차가 줄어들고 있는 가치관 항목들이 발견된 것은 고무적이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일치를 향한 암묵적 압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Na와 Duckitt(2003)이 지적했듯이, 한 사회에는 가치 일치(value consensus)와 가치 다양성(value diversity)이 조화롭게 공존한다. 30년간의 한국인 가치관 변화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가치 항목에 따라 가장 근본이 되며 잘 변하지 않는 합의된 '주류 가치관', 급격히 변화하여 젊은 층이 먼저 주도하고 뒤이어 기성세대가 대세에 적응해 가는 변화하는 '역동적 가치관', 그리고 구성원 외적 조건들의 변화로 인해 새로이 생성되거나 변화하는 '출현 가치관'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사회와 인간은 함께 움직이며 변화하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2010년의 50대가 1979년의 20대보다 더 진보적인 가치관을 충분히 지닐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최선의 생각과 행동으로 적응을 하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 인간 삶의 보편적 원리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세대차가 큰 사회로 알려져 있다(Inglehart & Welzel, 2005).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인은 세대차도 크지만 여전히 합의를 이루는 가치관도 많다. 소통이 잘되기 위해서는 '공통 기반'이 넓어야 하

는데, 지속적으로 남녀노소 모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안정된 가치관 항목들이 대개 그 기반이 될 것이다. 안정된 가치관 항목에서도 세대 간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점차 변화해 가면서 안정성을 상실하는 가치관도 생긴다. 그러나, 어떤 항목이 안정성을 상실하면서 또 다른 항목이 안정성을 획득해 간다. 이렇게 결국 한 사회는 모두가 대체로 동의하는 안정된 가치관을 주축들로 하여 그 위에 다양한 가치관들이 개성을 유지하며 운영되는 것이기에, 지나치게 염려만 할 필요는 없다. 서로의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다양성 속의 일치성(unity in variety), 일치성 속의 다양성(variety in unity)'을 추구하면 되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새로이 등장한 문제를 짚어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도 급격한 이주 수용국으로 변하고 있는데 외국인 우대 가치관에 대한 세대차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다른 나라의 가치관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남녀평등의식과 개인주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복지와 자기표현의 기회를 주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공유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속도에서 세대 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각 나라의 전통과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독특한 측면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지만, 전체적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이 향하는 방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류 보편적인 변화의 방향에 뒤늦게 합류한 나라일수록 어느 순간 더 빠른 변화 속도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상당히 중요하고 유용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얻었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개방형 질문이 아닌 양자택일의 폐쇄형 질문을 함으로써 자유로운 응답이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오랜 세월 마모되지 않을 수 있는 가치관 변화 측정 척도를 만들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기획해 볼 수 있겠다. 둘째, 가치관 측정은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언어와 그 의미 변화가 가치관 변화 수치에 온전히 반영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 언어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현

상이지만, 이로 인한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는 표준화된 가치관 측정 방식도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세 시점에서 조금씩 다른 표집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기별 표본의 대표성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가치관 변화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왔다는 것은 연구의 표본들이 충분히 대표성 있는 신뢰로운 표본들이었음을 방증한다. 장기조사 연구가 어렵기는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실증적인 변화 방향을 근거로 다가올 미래를 보다 현명하게 준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규남, 신만수 (2001).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종업원 조직몰입 특성에서 개인적 가치성향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경영학 연구*, 30(3), 877-904.
- 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109-142.
- 김익수 (2007). 한국인(韓國人)의 가치관과 국가관 ; 공자(孔子) 효사상(孝思想)의 한국적(韓國的) 계승양상(繼承樣相): 생존한 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중심으로. *한국의 청소년문화*, 9, 85-134.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52.
- 박은아, 우석봉 (2007). 영 실버와 실버들의 의식주와 가치관. *광고정보*, 8, 76-79.
- 변지은, 이수정, 윤소연, 김근영, 손승영, 오경자 (1997).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조직 중심적 경향이 관료 부패에 대한 용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107-122.
- 윤상우, 김상돈 (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91-117.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삼식, 최효진, 박성재 (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 이철우 (1999). 최근 3년간 세대별 가치관의 변화 II: 10대의 급격한 가치관 변화, 20, 30대의 무력감 주목해야. *광고정보*, 9, 127-134.
- 이훈구 (1987). 한국대학생의 가치관과 정치. *한국심리학회지*, 3(2), 25-43.
- 인태정 (2009). 다문화 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국제지역연구*, 13(2), 339-369.
- 임희섭 (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
- 장재천 (2007). 한국인(韓國人)의 가치관과 국가관 ; 충효례(忠孝禮) 윤리의 인간교육적 가치, *한국의 청소년문화*, 9, 157-189.
- 정명숙, 김혜리 (2005).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세대 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15-135.
- 정옥분,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 (2007). 가족가치관과 부모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15-249.
- 정진경 (2002).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163-177.
- 조소연, 오윤자 (2001) 부모의 가족 가치관 및 관련변수가 미혼성인 자녀의 가족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271-284.
- 조준하 (2007). 한국인(韓國人)의 가치관과 국가관 ; 전통문화는 유교(儒敎)의 효문화(孝文化)이다, *한국의 청소년문화*, 9, 135-156.
- 정철희 (1997). 문화변동과 사회민주화: 탈물질주의 가치와 공중-주도 정치. *한국사회학*, 31, 61-83.
- 차재호 (1985). 70년대 말에서의 가치, 태도 및 신념으로 본 한국인의 세대차. *사회심리학회지*, 2(2), 129-168.

- 차재호, 나은영 역 (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문화 간 협력과 세계 속에서의 생존. 서울: 학지사.
- 최인영, 최혜경 (2009).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 특성 및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81-109.
- 한덕웅, 이경성 (2003).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 변화: 30년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49-67.
- 홍기원, 전방지, 차경호 (2001). 남녀의 평등의식, 고정관념적 성차의식,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73-188.
- Dukes, W. F., & Dempsey, P. (1966). Judging complex value stimuli: An examination and revision of Morris paths of lif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6, 871-882.
- Epstein, T.S. (2002). Mysore villages revisited. In R. V. Kemper and A.P. Royce(eds.), *Chronicle of cultures: Long-term field research in anthropology*(pp.59-80).Walnut Creek, CA: AltaMira.
- Esses, V.M., Dovidio, J.F., Jackson, L.M., & Armstrong, T.L.(2001), The immigration dilemma: The role of perceived group competition, ethnic prejudice, and national identity, *Journal of Social Issues*, 57(3),389-412.
- Fussell, W. (1996). The value of local knowledge and the importance of shifting beliefs in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1(1), 44-53.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 Hills.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Welzel, C.(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cki, R., Barry, B., Saunders, B. & Minton, J. (2008). 협상의 즐거움 [*Essentials of Negotiation(4th ed)*]. (김성형 역). 서울: 스마트비즈니스. (원전은 2006에 출판).
- Makita, T., & Ida, M. (2001). Highlights of value change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3(4), 426-432.
- Morris, C., & Jones, L. (1955). Value scales and dimensions.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51, 523-535.
- Na, E. -Y., & Duckitt, J. (2003). Value consensus and diversity between generations and gende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2-63, 411-435.
- Newcomb, T. M., Turner. R. H. & Converse. P. E. (1970). *Social Psychology*,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Noelle-Neumann, E. (1998). A shift from the right to the left as an indicator of value change: A battle for the climate of opi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0(4), 317-334.
- Ritsher, J. E. B., Warner, V., Johnson, J., Dohrenwend, B. (2001). Inter-gener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class and depression: A test of social causation and social selection model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8, s84-s90.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Y: Free Press.
- Tranter, B., & Western, M. (2010). Overstating value change: Question ordering in the postmaterial values index.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5), 571-583.

## Trends of Value Changes in Korea: Based on 1979, 1998, and 2010 Survey Data

Eun-Yeong Na    Yuri Cha  
Sog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presents the trends of value changes in Korea through the analyses of 1979, 1998, and 2010 survey data. In order to compare the data of three-wave surveys directly, the same value items were used in the 2010 survey as in 1998. Three items from each of the self- and family-centered individualism, anti-authoritarianism, assertiveness, uncertainty-avoidance, future orientation, gender equality, and rich life were selected. 800 Koreans (100 from each of 20's, 30's, 40's, and 50's males and females) were sampled from Seoul, 6 National Regional Cities, and proportional districts at Kyung-gi Province, and were survey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Results showed the greatest increase of (1) individualism emphasizing self and close family, and (2) egalitarian perspective toward women (permission of social activity, decrease of stick to chastity, etc.) between 1998 and 2010, as between 1979 and 1998. In addition, (3) the increasing tendency of assertiveness and anti-authoritarianism was a little weakened, because of a slight increase of humbl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Interestingly, the 50's speed of change was a little faster than the 20's during the recent 12 years from 1998 through 2010, which resulted in somewhat decreased generational difference especially in the rapidly-changing value items. This result is different from that in 1998 survey, which had showed the faster change of 20's than 50's. It seems that during the recent 12 years (1998~2010) the 50's have been trying to adjust themselves to the widely-accepted values which had been led by the youngers during the previous 19 years (1979~1998). Relatively stable values which have gained support from over 50% of Koreans regardless of genders and generations throughout the investigated 30 years are also important as common ground of mutual communication for a united society.

*Keywords:* value, change, generation, difference, Korean, individualism, gender equality, power-distance, assertiveness, communication

1차원고 접수일 : 2010년 9월 11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0년 11월 12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11월 18일

부록 I-1

개인주의

	1. 충효사상		2. 떠받들어야 할 것		3. 호도란		전체 (N)	
	중요함	중요치 않음	나라	자신과 가족	부모봉양	출세		
성 별	남자	63.8	36.3	13.3	86.8	39.3	60.8	400
		(76.3)	(23.5)	(28.3)	(71.7)	(61.2)	(38.8)	(392)
	여자	(79.0)	(21.0)	(66.7)	(33.3)	(52.3)	(47.7)	(300)
		59.3	40.8	8.5	91.5	32.3	67.8	400
연 령	20-29세	(72.8)	(27.2)	(27.9)	(71.8)	(52.0)	(47.8)	(408)
		(81.7)	(18.3)	(50.7)	(49.3)	(53.7)	(46.3)	(300)
	30-39세	54	46	6.5	93.5	38.5	61.5	200
		(58.4)	(41.6)	(17.8)	(82.0)	(46.1)	(53.9)	(219)
40-49세	(74.7)	(25.3)	(51.9)	(49.0)	(51.0)	(49.0)	(300)	
	61.5	38.5	8.0	92.0	31.0	69.0	200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78.5)	(32.6)	(30.5)	(69.5)	(59.2)	(40.4)	(223)
		61.5	38.5	7.5	92.5	36.0	64.0	200
	50-59세	(77.2)	(22.8)	(27.6)	(72.4)	(57.9)	(42.1)	(145)
		69.0	31.0	21.5	78.5	37.5	62.5	200
고 졸 이 상	고졸	(86.8)	(12.6)	(36.5)	(69.2)	(65.3)	(34.7)	(167)
		(86.0)	(14.0)	(66.3)	(33.7)	(55.0)	(45.0)	(300)
	대재 이상	58.5	41.5	13.2	86.8	26.4	73.6	53
		(81.4)	(18.6)	(41.0)	(59.0)	(65.4)	(34.6)	(156)
대재 이상	(89.5)	(10.5)	(67.0)	(33.0)	(61.5)	(38.5)	(200)	
	63.7	36.3	9.2	90.8	31.5	68.5	251	
대재 이상	(76.4)	(23.6)	(27.5)	(72.2)	(57.5)	(42.5)	(313)	
	(83.5)	(16.5)	(65.5)	(34.5)	(51.0)	(49.0)	(200)	
대재 이상	60.7	39.3	11.5	88.5	38.9	61.1	496	
	(69.5)	(30.2)	(22.7)	(77.3)	(51.4)	(48.3)	(331)	
대재 이상	(68.0)	(32.0)	(43.5)	(56.5)	(46.5)	(53.5)	(200)	

주요 항목들에서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 (괄호 안은 '98, '79년 결과)

부록 I-2

탈권위주의

		4. 사람을 고용할 때		5. 사회질서 유지		6. 윗사람 틀릴 때		전체 (N)	
		고분고분	책임감	상하구별	직능구분	모른척	지적		
성 별	남자	36.8	63.3	59.3	40.8	24.8	75.3	400	
		(31.4)	(68.6)	(68.1)	(31.9)	(9.4)	(90.6)	(392)	
	여자	(26.7)	(73.3)	(72.7)	(27.3)	(13.0)	(87.6)	(300)	
		32.5	67.5	58.3	41.8	21.5	78.5	400	
		(29.2)	(70.8)	(71.1)	(28.9)	(16.4)	(83.3)	(408)	
		(39.7)	(60.3)	(73.0)	(27.0)	(39.0)	(61.0)	(300)	
연 령	20-29세	34.5	65.5	48.0	52.0	21.5	78.5	200	
		(25.1)	(74.9)	(63.5)	(36.5)	(8.2)	(91.3)	(219)	
	30-39세	(28.6)	(71.4)	(73.7)	(26.3)	(12.3)	(87.7)	(300)	
		35.5	64.5	63.0	37.0	26.0	74.0	200	
	40-49세	(25.6)	(74.4)	(62.8)	(37.2)	(8.5)	(91.5)	(223)	
		35.0	65.0	56.0	44.0	23.0	77.0	200	
	50-59세	(33.8)	(66.2)	(73.1)	(26.9)	(14.5)	(85.5)	(145)	
		33.5	66.5	68.0	32.0	22.0	78.0	200	
		(37.7)	(63.2)	(82.0)	(18.0)	(20.4)	(79.6)	(167)	
		(37.6)	(62.4)	(72.0)	(28.0)	(17.3)	(82.7)	(300)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34.0	66.0	56.6	43.4	20.8	79.2	53
			(36.5)	(63.5)	(71.8)	(28.2)	(21.8)	(78.2)	(156)
고졸		(42.5)	(57.5)	(69.5)	(30.5)	(26.0)	(74.0)	(200)	
		31.9	68.1	59.0	41.0	21.5	78.5	251	
대재 이상		(30.0)	(70.0)	(75.1)	(24.9)	(12.1)	(87.5)	(313)	
		(36.0)	(64.0)	(75.0)	(25.0)	(12.0)	(88.0)	(200)	
	36.1	63.9	58.9	41.1	24.2	75.8	496		
	(27.5)	(72.5)	(63.4)	(36.6)	(9.7)	(90.3)	(331)		
	(21.0)	(79.0)	(74.0)	(26.0)	(6.5)	(93.5)	(200)		

주요 항목들에서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 (괄호 안은 '98, '79년 결과)

부록 I-3

자기 주장성

	7. 함께 행복하려면		8. 겸손과 실력과의 중		9. 낙오자 도태 경향		전체 (N)		
	인내	시정요구	겸손	실력 드러냄	자연적 귀결	슬픈 일			
성 별	남자	27.3	72.8	78.5	21.5	37.3	62.8	400	
		(34.2)	(65.8)	(80.9)	(19.1)	(40.1)	(59.9)	(392)	
	여자	20.5	79.5	80.0	20.0	35.8	64.3	400	
		(33.6)	(66.4)	(77.7)	(22.3)	(35.0)	(64.7)	(408)	
연 령	20-29세	20.5	79.5	71.0	29.0	39.5	60.5	200	
		(19.2)	(80.8)	(73.1)	(26.9)	(39.3)	(60.7)	(219)	
	30-39세	21.5	78.5	79.0	21.0	36.5	63.5	200	
		(27.8)	(72.2)	(78.5)	(21.5)	(38.1)	(61.9)	(223)	
	40-49세	25.0	75.0	80.5	19.5	38.5	61.5	200	
		(41.4)	(58.6)	(86.9)	(13.1)	(37.9)	(62.1)	(145)	
	50-59세	28.5	71.5	86.5	13.5	31.5	68.5	200	
		(47.3)	(52.7)	(80.2)	(19.8)	(34.7)	(64.7)	(167)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22.6	77.4	86.8	13.2	20.8	79.2	53	
		(45.5)	(54.5)	(80.8)	(19.2)	(30.1)	(69.2)	(156)	
	고졸	23.5	76.5	82.9	17.1	37.5	62.5	251	
		(34.5)	(65.5)	(84.3)	(15.7)	(37.4)	(62.6)	(313)	
	대재 이상	24.2	75.8	76.6	23.4	37.7	62.3	496	
		(27.8)	(72.2)	(73.7)	(26.3)	(41.1)	(58.9)	(331)	
			(35.5)	(64.5)	(58.0)	(42.0)	(29.5)	(70.5)	(200)

주요 항목들에서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 (괄호 안은 '98, '79년 결과)

부록 I-4  
불확실성 회피 성향

	10. 인생 사는 지혜		11. 외국인 대할 때		12. 처음 보는 사람		전체 (N)		
	여유있게	서두른다	더 친절	똑같이 / 덜 친절	친절히	경계해야			
성 별	남자	74.3	25.8	56.5	43.5	78.3	21.8	400	
		(67.3)	(32.1)	(84.9)	(15.1)	(90.1)	(9.9)	(392)	
		(55.3)	(44.7)	(80.3)	(19.7)			(300)	
	여자	72.8	27.3	66.3	33.8	79.8	20.3	400	
		(69.1)	(30.6)	(87.0)	(13.0)	(83.8)	(15.9)	(408)	
		(60.0)	(40.0)	(83.7)	(16.3)			(300)	
연 령	20-29세	75.5	24.5	68.5	31.5	83.5	16.5	200	
		(62.6)	(37.0)	(83.6)	(16.4)	(92.2)	(7.8)	(219)	
		(58.7)	(41.3)	(79.0)	(21.0)			(300)	
	30-39세	66.0	34.0	61.5	38.5	79.5	20.5	200	
		(70.0)	(29.1)	(82.1)	(17.9)	(87.9)	(12.1)	(223)	
	40-49세	76.5	23.5	63.0	37.0	79.0	21.0	200	
		(73.8)	(26.2)	(93.8)	(6.2)	(80.7)	(18.6)	(145)	
		(56.7)	(43.3)	(85.0)	(15.0)			(300)	
	50-59세	76.0	24.0	52.5	47.5	74.0	26.0	200	
		(68.3)	(31.7)	(86.2)	(13.8)	(84.4)	(15.6)	(167)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77.4	22.6	45.3	54.7	71.7	28.3	53
			(69.9)	(20.1)	(86.5)	(13.5)	(80.1)	(19.9)	(156)
(51.5)			(48.5)	(81.0)	(19.0)			(200)	
고졸		71.3	28.7	55.8	44.2	72.5	27.5	251	
		(68.1)	(31.3)	(87.5)	(12.5)	(85.9)	(14.1)	(313)	
		(54.0)	(46.0)	(79.0)	(21.0)			(200)	
대재 이상		74.2	25.8	65.9	34.1	83.1	16.9	496	
		(67.7)	(32.0)	(84.3)	(15.7)	(90.9)	(8.8)	(331)	
		(67.5)	(32.5)	(86.0)	(14.0)			(200)	

주요 항목들에서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 (괄호 안은 '98, '79년 결과)

부록 I-5

미래지향성

	13. 과거와 미래 중 버릴 것		14. 현재와 미래 중 택할 것		15. 전통적인 풍습		전체 (N)	
	미래 버림	과거 버림	현재 즐길 것	미래 대비함	문명위기 극복	도움 안됨		
성 별	남자	13.0 (8.7)	87.0 (91.8)	36.0 (14.8)	64.0 (85.2)	59.3 (76.5)	40.8 (23.2)	400 (392)
		(13.3)	(86.7)			(79.7)	(20.3)	(300)
	여자	10.8 (6.4)	89.3 (93.6)	38.5 (19.4)	61.5 (80.6)	62.5 (78.2)	37.5 (21.6)	400 (408)
		(7.0)	(93.0)			(78.3)	(21.7)	(300)
연 령	20-29	16.0 (9.1)	84.0 (90.0)	49.5 (23.7)	50.5 (76.3)	59.0 (74.9)	41.0 (25.1)	200 (219)
	세	(10.0)	(90.0)			(79.0)	(21.0)	(300)
	30-39	8.0 (4.9)	92.0 (95.1)	36.5 (15.2)	63.5 (80.6)	60.0 (74.0)	40.0 (25.1)	200 (223)
	세	(9.0)	(95.2)	(13.8)	(76.3)	(79.3)	(20.7)	145
	40-49	8.0 (4.2)	92.0 (80.4)	32.0 (13.8)	68.0 (86.2)	62.0 (82.0)	38.0 (18.0)	200 (167)
	세	(10.4)	(89.6)			(79.0)	(21.0)	(300)
	50-59	15.5 (9.6)	84.5 (89.7)	31.0 (16.7)	69.0 (86.2)	62.5 (76.9)	37.5 (22.4)	200 (156)
	세	(17.5)	(82.5)			(75.0)	(25.0)	(200)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13.2 (9.6)	86.8 (89.7)	32.1 (16.7)	67.9 (86.2)	73.6 (76.9)	26.4 (22.4)	53 (156)
		(17.5)	(82.5)			(75.0)	(25.0)	(200)
	고졸	13.1 (8.9)	86.9 (91.1)	35.5 (15.7)	64.5 (86.2)	59.4 (78.3)	40.6 (21.4)	251 (313)
		(8.0)	(92.0)			(76.5)	(23.5)	(200)
	대재 이상	11.1 (5.1)	88.9 (94.9)	38.7 (18.7)	61.3 (82.6)	60.3 (76.7)	39.7 (23.3)	496 (331)
		(5.0)	(95.0)			(85.5)	(14.5)	(200)

주요 항목들에서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 (괄호 안은 '98, '79년 결과)

부록 I-6

남녀평등의식

	16. 처녀의 정조		17. 결혼한 여자		18. 시집과 친정		전체 (N)	
	지켜야	지키지 않아도	활동해야	가정 안	시집 총성	시집 =친정		
성 별	남자	35.5	64.5	60.3	39.8	14.8	85.3	400
		(69.9)	(29.8)	(59.9)	(39.9)	(38.8)	(60.7)	(392)
		(86.3)	(13.7)	(36.3)	(63.7)	(68.0)	(32.0)	(300)
	여자	41.3	58.8	67.0	33.0	5.5	94.5	400
		(72.1)	(27.9)	(71.1)	(28.9)	(25.5)	(73.0)	(408)
		(89.7)	(10.3)	(42.7)	(57.3)	(58.7)	(41.3)	(300)
연 령	20-29 세	33.5	66.5	68.0	32.0	11.0	89.0	200
		(54.8)	(45.2)	(72.6)	(27.4)	(23.7)	(74.9)	(219)
		(80.7)	(19.3)	(38.7)	(61.3)	(55.0)	(45.0)	(300)
	30-39 세	24.0	76.0	66.5	33.5	7.0	93.0	200
		(65.0)	(34.5)	(65.0)	(34.5)	(26.0)	(72.2)	(223)
		(81.4)	(18.6)	(61.4)	(38.6)	(32.4)	(67.7)	(145)
	40-49 세	40.0	60.0	68.0	32.0	9.5	90.5	200
		(81.4)	(18.6)	(61.4)	(38.6)	(32.4)	(67.7)	(145)
		(87.5)	(12.5)	(29.0)	(71.0)	(66.0)	(34.0)	(200)
	50-59 세	56.0	44.0	52.0	48.0	13.0	87.0	200
		(87.4)	(12.6)	(62.3)	(37.7)	(46.1)	(53.3)	(167)
		(95.3)	(4.7)	(40.4)	(59.6)	(71.7)	(28.3)	(300)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66.0	34.0	49.1	50.9	7.5	92.5	53
		(87.2)	(12.2)	(62.2)	(37.8)	(44.9)	(53.8)	(156)
		(88.5)	(11.5)	(60.5)	(39.5)	(75.0)	(25.0)	(200)
	고졸	39.8	60.2	57.4	42.6	10.4	89.6	251
		(75.1)	(24.9)	(62.0)	(37.7)	(28.1)	(71.2)	(313)
		(87.5)	(12.5)	(29.0)	(71.0)	(66.0)	(34.0)	(200)
대재 이상	34.7	65.3	68.3	31.7	10.3	89.7	496	
	(59.5)	(40.5)	(70.7)	(29.3)	(29.6)	(69.2)	(331)	
	(88.0)	(12.0)	(29.0)	(71.0)	(49.0)	(51.0)	(200)	

주요 항목들에서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 (괄호 안은 '98, '79년 결과)

부록 I-7  
 풍요로운 생활

	19. 돈이란 것은		20. 인생을 잘 사는 것		21. 직업 귀천		전체 (N)	
	있어도 없어도	꼭 있어야	깨끗이 옳게	풍부하게	있다	없다		
성 별	남자	24.5 (24.0)	75.5 (76)	32.3 (52.3)	67.8 (46.9)	36.3 (32.0)	63.8 (67.3)	400 (392)
	여자	16.8 (23.0)	83.3 (77)	27.3 (46.8)	72.8 (53.2)	37.0 (30.9)	63.0 (69.1)	400 (408)
		(30.3)	(69.7)	(63.0)	(37.0)	(44.3)	(55.7)	(300)
	20-29세	31.5 (34.2)	68.5 (65.8)	26.5 (28.8)	73.5 (71.2)	32.5 (33.3)	67.5 (66.7)	200 (219)
연 령	30-39세	18.0 (18.4)	82.0 (81.6)	26.0 (44.8)	74.0 (54.7)	38.5 (27.8)	61.5 (72.2)	200 (223)
	40-49세	13.5 (15.2)	86.5 (84.8)	34.5 (60.7)	65.5 (38.6)	38.0 (34.5)	62.0 (64.8)	200 (145)
	50-59세	19.5 (20.4)	80.5 (79.6)	32.0 (65.9)	68.0 (34.1)	37.5 (32.3)	62.5 (67.7)	200 (167)
	(26.7)	(73.3)	(71.3)	(28.7)	(41.0)	(59.0)	(300)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9.4 (25.0)	90.6 (75.0)	26.4 (68.6)	73.6 (30.8)	43.4 (24.4)	56.6 (75.0)	53 (156)
	고졸	15.9 (19.2)	84.1 (80.8)	36.7 (50.2)	63.3 (49.2)	35.5 (31.0)	64.5 (68.7)	251 (313)
	대졸 이상	24.2 (26.9)	75.8 (73.1)	26.6 (39.9)	73.4 (60.1)	36.5 (35.3)	63.5 (64.7)	496 (331)
		(27.5)	(72.5)	(54.0)	(46.0)	(43.5)	(56.5)	(200)

주요 항목들에서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 (괄호 안은 '98, '79년 결과)

부록 I-8

주요 인구학적 변인별 가치관 분포의 차이 ( $\chi^2$  검증)

구분	개인주의					
	1. 충효사상		2. 떠받들어야 할 것		3. 효도란	
	2010년	1998년	2010년	1998년	2010년	1998년
성별	n.s.	n.s.	4.656*	n.s.	4.267*	6.78**
연령	9.503*	47.01***	31.300***	20.03***	n.s.	15.74**
교육수준	n.s.	8.51*	n.s.	17.77***	6.167*	8.48*
구분	탈권위주의					
	4. 사람을 고용할 때		5. 사회질서유지		6. 윗사람 틀릴 때	
	2010년	1998년	2010년	1998년	2010년	1998년
성별	n.s.	n.s.	n.s.	n.s.	n.s.	8.70**
연령	n.s.	12.07*	18.713***	22.76***	n.s.	23.51***
교육수준	n.s.	n.s.	n.s.	10.73**	n.s.	14.09***
구분	자기주장성					
	7. 함께 행복하려면		8. 겉손과 실력과의 증		9. 낙오자 도태	
	2010년	1998년	2010년	1998년	2010년	1998년
성별	5.014*	n.s.	n.s.	n.s.	n.s.	n.s.
연령	n.s.	56.85***	14.868**	11.30*	n.s.	n.s.
교육수준	n.s.	14.95***	n.s.	11.32**	6.076*	n.s.
구분	불확실성 회피 성향					
	10. 인생사는 지혜		11. 외국인 대할 때		12. 처음 보는 사람	
	2010년	1998년	2010년	1998년	2010년	1998년
성별	n.s.	n.s.	8.020**	n.s.	n.s.	6.39*
연령	n.s.	n.s.	11.152*	12.35*	n.s.	10.84*
교육수준	n.s.	n.s.	13.444***	n.s.	13.015**	11.99**
구분	미래지향성					
	13. 과거와 미래 중 버릴 것		14. 현재와 미래 중 택할 것		15. 전통적인 풍습	
	2010년	1998년	2010년	1998년	2010년	1998년
성별	n.s.	n.s.	n.s.	n.s.	n.s.	n.s.
연령	11.503**	15.62**	18.589***	9.77*	n.s.	n.s.
교육수준	n.s.	n.s.	n.s.	n.s.	n.s.	n.s.
구분	남녀평등의식					
	16. 처녀의 정조		17. 결혼한 여자		18. 시집과 친정	
	2010년	1998년	2010년	1998년	2010년	1998년
성별	n.s.	n.s.	3.937*	10.68**	18.805***	15.54***
연령	45.981***	65.24***	15.701**	n.s.	n.s.	30.19***
교육수준	20.245***	44.91***	13.881**	6.24*	n.s.	15.27***
구분	풍요로운 생활					
	19. 돈이란 것은		20. 인생을 잘 사는 것		21. 직업 귀천	
	2010년	1998년	2010년	1998년	2010년	1998년
성별	7.338**	n.s.	n.s.	n.s.	n.s.	n.s.
연령	21.646***	27.08***	n.s.	79.47***	n.s.	n.s.
교육수준	11.283**	n.s.	8.341*	36.02***	n.s.	n.s.

주요 항목들에서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 (\*p < .05, \*\*p < .01, \*\*\*p < .001.)